

# 11. 멜로디에 코드 붙이기

## 음악을 작곡하는 여러 방법들

- 01. 가사를 모티프로 작곡  
 작사 → 멜로디 작곡 → 코드 진행 → 편곡(악기 구성, 반주법) → 녹음 → 믹싱 → 마스터링  
*e.g.) 가사가 중심이 되는 음악, 싱어송라이터들의 음악 등*
- 02. 멜로디를 모티프로 작곡  
 멜로디 작곡 → 코드 진행 → 편곡 → 작사 → 녹음 → 믹싱 → 마스터링  
*e.g.) 멜로디가 중심이 되는 음악, K-발라드, 리메이크 곡 등*
- 03. 화성을 모티프로 작곡  
 코드 진행 → 편곡 → 멜로디(탑라인) → 작사 → 녹음 → 믹싱 → 마스터링  
*e.g.) 순환코드나 리듬이 중심이 되는 음악, 댄스, 하우스 등*
- 04. 리듬을 모티프로 작곡  
 리듬 만들기(드럼, 베이스리프, 기타/피아노 리프, 신스 리프 등) → 코드 진행 → 편곡 → 멜로디  
 → 작사 → 녹음 → 믹싱 → 마스터링  
*e.g.) 리듬이 중심이 되는 음악, 댄스, 펑크, 힙합, 뉴잭스윙, 셔플/스윙 등*  
 \* 여러 과정들이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순서가 바뀔 수 있다.

## 멜로디에 코드 붙이기가 사용되는 곳

- 멜로디를 먼저 만든 후에 멜로디에 맞는 코드진행을 만들 때 (위의 01,02 해당)
- 멜로디에 코드를 간단하게 붙인 후에 다시 리하모니제이션 할 때 (위의 01-04 모두 해당)

## 멜로디에 코드 붙이는 과정

- 01. 음악에 대한 이해  
 스타일(장르), 가사, 음악의 쓰임새, 리스너, **송풍**, 기타 음악적 특징 등
- 02. 멜로디에 대한 이해  
 모티프, **리듬**, **타겟 노트**, Hook, 반복 요소, 상행/하행
- 03. 화성의 선택  
 토날 or 모달, 메이저 or 마이너, 화성의 난이도(코드의 수, 3 화음/4 화음, 텐션, 다이아토닉/논다이아토닉 비율, 어퍼스트럭처 등)
- 04. 첫 코드의 선택  
 토닉 코드/서브도미넌트 코드
- 05. 멜로디에 코드 붙이기 : 멜로디에 맞는 코드 선택
- 06. 코드 진행 정리 : 앞 뒤 흐름에 맞는 코드 선택

## 타겟 노트(Target Note, 중심음)

멜로디에 맞는 코드를 넣을 때 중심이 되는 노트들을 타겟 노트라 한다.  
 타겟 노트를 잘 찾고, 타겟 노트가 안정적인 음이 되도록 코드를 넣는 것이 일반적이다.  
*c.f.) 스트럭처톤 : 코드를 가지고 멜로디를 만들 때 중심이 되는 코드톤*

**타겟 노트를 잘 찾는 방법(타겟 노트의 특징)**

- 타겟 노트는 주로 길이가 길다.
- 음 하나의 길이가 짧더라도 마디 내에서 혹은 앞뒤 마디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 비중이 높은 음은 타겟 노트가 될 수 있다.
- 타겟 노트는 멜로디 내에서도 주로 불안을 해결하는 음으로 사용된다.
- 타겟 노트는 논다이아토닉 노트가 나올 수도 있다. (논다이아토닉 코드로 처리)
- 타겟 노트의 선택은 음악의 스타일이나 음악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타겟 노트에 맞는 코드 찾기 연습**

타겟 노트를 찾은 후에 타겟 노트에 맞는 코드를 선택하면 멜로디에 맞는 코드를 붙일 수 있다. 멜로디에 코드 붙이기가 능숙해지려면 다음과 같은 연습이 필요하다.

- 멜로디 내에서 가장 적절한 타겟 노트를 찾는 연습
- 코드를 보고 코드톤(코드의 구성음)을 빠르게 계산하는 연습
- 코드톤을 보고 코드를 빠르게 조합하는 연습

**타겟 노트에 맞는 코드를 빠르게 찾는 방법**

타겟 노트가 안정적인 음이 되도록 하려면 타겟 노트가 코드톤이 되는 코드를 사용하면 된다.  
*e.g.) C Key 에서 타겟노트가 C 일때, C Am F Dm7 등의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코드톤은 주로 1/3/5/7 음이다. 이를 역으로 계산해서 타겟노트가 1/3/5/7 음이 되는 코드를 우선적으로 찾으면 코드 찾는 속도가 빨라진다.

- e.g.) C Key 에서 타겟노트가 C 가 1 음이 되는 코드 = C*
- C Key 에서 타겟노트가 C 가 3 음이 되는 코드 = Am, Am7*
- C Key 에서 타겟노트가 C 가 5 음이 되는 코드 = F, FM7*
- C Key 에서 타겟노트가 C 가 7 음이 되는 코드 = Dm7*

C Key 를 예로 들어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 Key 타겟노트	가능한 코드(다이아토닉 코드만)			
	1 음	3 음	5 음	7 음
C	C, CM7	Am, Am7	F, FM7	Dm7
D	Dm, Dm7	Bdim, Bm7 <sup>b5</sup>	G, G7	Em7
E	Em, Em7	C, CM7	Am, Am7	FM7
F	F, FM7	Dm, Dm7	Bdim, Bm7 <sup>b5</sup>	G7
G	G, G7	Em, Em7	C, CM7	Am7
A	Am, Am7	F, FM7	Dm, Dm7	Bm7 <sup>b5</sup>
B	Bdim, Bm7 <sup>b5</sup>	G, G7	Em, Em7	CM7

위의 표는 다이아토닉 노트, 다이아토닉 코드, 타겟노트를 코드톤으로 사용한 경우만 나와 있다. 다이아토닉 노트와 다이아토닉 코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노트와 코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익히는 것이 좋다.

앞으로 배우는 내용에 따라 더 많은 노트와 코드를 사용하게 되므로 위 표는 더 확장이 된다. 위의 표를 단순히 외우는 것 보다는 조합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1/3/5/7 음의 느낌 분류하기(아래내용은 참고만 하고 직접 정리하는 것이 좋음)**

타겟 노트가 어떤 코드톤으로 되는지(1/3/5/7 등)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 이를 이해하면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코드를 선택할 수 있다.

타겟노트와 코드의 관계	느낌/효과
1음	<p>단순하고 간결한 느낌이 든다.                      토닉 코드일 때 종결이 되는 느낌이 들 수 있다.                      코드의 1 음만 계속 이어지면 유치한 느낌이 날 수 있다.                      동요나 찬송가처럼 쉬운 음악에 많이 사용됨                      화성이 단순하고 사운드가 강렬한 음악에 많이 사용됨                      음악의 시작과 종결 부분에 많이 사용된다.</p>
3음	<p>화성적으로 포근하고 잘 어울리는 느낌                      일반적인 대중 음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p>
5음	<p>1음과 비슷하게 단순하고 간결한 느낌이 약간 있지만 무난한 느낌.                      코드의 5음만 계속되면 단순하고 강한 느낌이 난다.                      일반적인 대중 음악에서 많이 사용된다.</p>
7음 (단 7도)	<p>1/3/5 음보다는 덜 단순한 느낌                      세련되고 예쁜 느낌                      1/3/5에 비해 약간은 튀는 소리                      4 화음이 사용되므로 2 화음이나 3 화음을 사용했을 때보다 약하게 들리기 쉽다.</p>
7음 (장 7도)	<p>세련되고 감미로운 느낌                      복잡하고 약한 느낌                      텐션처럼 긴장감이 강하고 개성이 있는 소리                      강해야 하는 음악에는 잘 사용하지 않음</p>

앞으로 배우는 내용에 따라 더 많은 노트와 코드를 사용하게 되므로 위의 표는 더 확장이 된다. 어떤 음악인지,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들었는지에 따라 각자 느끼는 바가 다르므로 위의 표는 참고만 하고, 본인의 느낌을 직접 정리하는 것이 좋다.

### 코드의 앞뒤 흐름에 맞게 정리하기

멜로디의 타겟 노트를 잘 선택하고, 타겟 노트에 맞는 코드를 잘 고르더라도 이 코드가 앞 뒤 코드의 흐름을 방해한다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는다. 따라서 멜로디에 어울리는 코드를 4~5 개 정도 골라 놓고 흐름에 맞는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을 잘 처리하려면 코드진행을 공부해야 한다.

코드를 진행하는 방법은 기능화성을 이용하는 방법, 음정관계를 이용하는 방법, 케이던스 및 순환코드를 외우는 방법, 공통음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 HOMEWORK

멜로디에서 타겟 노트를 찾는 연습해보기  
 선택한 타겟 노트를 바탕으로 코드 붙여보기 (쉬운 곡부터)  
 멜로디 하나를 골라 여러 버전으로 코드 붙여보기  
 (메이저/마이너, 토닉으로 시작/서브도미넌트로 시작, 3 화음/4 화음, 코드 개수 변경 등)  
 타겟 노트를 바꿔가며 코드 붙여보기  
 쉬운 원곡의 코드를 어렵게 바꿔보기  
 어려운 원곡의 코드를 쉽게 바꿔보기  
 코드를 붙인 후에 연주하거나 편곡해보기  
 멜로디에 코드 붙이는 연습 꾸준히 하기  
 (뒤에 배우는 텐션, 논다이아토닉 코드, 전조, 모달 하모니 등을 적용)

### 기타 안내사항

오프라인 개인 레슨 안내문 : <http://bonik.me/523>  
 질문, 아이디어, 콜라보레이션, 사연, 협찬 등 : 이메일([mail@bonik.me](mailto:mail@bonik.me))  
 유튜브 구독, 추천 버튼을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